



사제가 들려주는 가장 따뜻한 음악 피아니스트 문용희 & 탁영아의 함께가는 길

지난 8월호 본지의 표지를 장식하며 화제를 불러일으킨 스승과 제자, 피아니스트 문용희(피바디 음대 교수)와 탁영아(뉴욕주립대 팻츠담 음대 교수)가 무대에 올라 관객을 만났다. 수많은 사제지간의 연주자들이 수없이 많은 무대에 오르지만 9월 5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만난 사제의 연주는 좀 더 특별했다고 감히 확인할 수 있다. 스승과 제자가 한마음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과 음악은 더없이 따뜻하다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 되었다.

피아노 한 대와 네 손을 위한 작품들로 구성된 연주회의 1부. 그 첫 곡은 바흐의 <Sheep May Safely Graze>를 Leonard Duck이 편곡한 곡이었다. 하나의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은 스승과 제자는 청명한 가을 하늘 같은 소리를 만들어냈다. 듣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애피타이저의 역할을 해주었다. 문용희, 탁영아 두오는 다음 곡으로 슈베르트의 <환상곡, D.940>을 연주하여 분위기를 환기했다. 문용희는 중후한 하성을, 탁영아는 빛나는 상성을 보여주었는데, 더 인상 깊었던 것은 서로 다른 선율을 연주하

는 두 사람이 통일된 하나의 감정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마지막 악장까지 감정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조절하여 놓치지 않았으며, 마지막 화음까지 하나의 호흡으로 연주해냈다. 1부의 마지막 곡은 드보르작의 <Slavonic Dances>. 문용희와 탁영아는 이전에 연주한 곡들처럼 여전히 한 사람이 연주하는 듯한 호흡을 자랑했다. 익살스러운 악구를 연주할 때에는 어김없이 두 사람의 얼굴엔 개구쟁이와 같은 미소가 번졌고, 그들의 미소처럼 관객도 음악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부는 두 대의 피아노와 네 손을 위한 레퍼토리가 연주되었다.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K.448>에서는 2악장과 3악장 연주가 돋보였다. 느리고 아름다운 2악장은 문용희와 탁영아 두오에게 헌정된 곡 마냥 잘 어울렸고, 3악장에서 보여준 두 사람의 호흡은 본인들마저 흡족한 표정을 지을 만큼 훌륭했다. 그런 호흡은 두 연주자가 사전에 연습을 아주 많이 했거나 오랜 시간 알고 지내며 서로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이 두오는

두 가지 모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마지막 곡인 차이콥스키 작품 두 곡 중에서도 두 번째로 연주된 오페라 <에브게니 오네긴>에 수록된 <Grande Valse Brillante>에서는 두 사람이 각자 가진 카리스마가 인상적으로 드러났다. 문용희의 연륜에서 나오는 압도적 카리스마, 그리고 탁영아의 에너지가 넘쳐흐르는 카리스마가 잘 조화되어 음악회의 마지막을 성대하게 장식했다.

모든 연주를 마친 문용희와 탁영아는 무대 앞으로 나와 인사를 한 후에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스승이 제자와 연주한다는 것, 제자가 스승과 연주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말 못할 큰 부담이 되었을 텐데, 두 연주자는 그런 부담에 대한 내색이 전혀 없는 훌륭한 연주를 선보였다. 그것을 지켜보는 관객의 가슴은 더욱 평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두 명의 연주자에게는 아낌없는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사제가 함께 보여준 음악. 그것은 가장 따뜻한 음악이었다.

글 · 심세나 편집장